

〈일반논문〉

만주국 시기 ‘한인 개척민’ 이주 설계자 윤상필의 생애와 활동 : 제국주의 일본과의 협치와 굴종*

김 주 용 **

〈목차〉

- I. 머리말
- II.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일본육사 생활
- III. 만주사변과 ‘재만 한인 구제 활동’
- IV. 만주국 관료 : ‘왕도낙토’ 선전의 침병활동
- V. 맺음말

[국문초록]

윤상필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마지막 생도였다. 탁월한 능력과 체력을 겸비한 그는 1909년 일본으로 건너가 1915년 육군사관학교 27기로 졸업하였다. 그가 군인이자 행정 관료로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이후의 일이다. 중국 패잔병의 공격을 받은 한인들을 조사하고 보호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고 그는 1935년 군복을 벗고 만주국 고위 관료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 적극적인 친일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농

* 이 글은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에서 2020년 10월 23일 발표했던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게재한 것이며, 2017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279082)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민들은 그의 손끝으로 만주로 강제 이주되었다. 해방 이후 그는 소련군에 체포되어 시베리아 수용소로 갔고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였다. 영민하고 비범한 인재였던 윤상필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했던 친일의 오욕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가 외면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 주제어

윤상필,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일본육군사관학교, 만주사변, 만주국, 이주, 친일

I. 머리말

1932년 3월 만주국이 성립하면서 제국주의 일본은 이 지역에 대대적인 집단 이민을 추진하였다. 일본인 100만 호 이주계획을 실시하였지만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 그 대안으로 한반도의 농민에 주목하였다. 만주척식주식회사를 통해 한반도의 농민들은 혹독한 추위가 기다리고 있던 만주벌판으로 내몰렸다. 특히 영안현에는, 만주국의 입장에서 국방산업에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농축산의 증식을 위해 도로, 통신을 정비하여 운수기관의 확충으로 물자수송 및 배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개척민의 입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만주국은 치안 불안 요소를 극복하고 신진 청년들을 더 많이 이주시키기 위해 청소년의용대를 운영하였다. 1936년 청년의용대가 영안현 사란진에 개설되었으며, 1936년 12월 3,600명이 마을에 정착하였다. 기본훈련을 실시한 후 1939년부터 다시 갑종훈련소에서 훈련시켜 만주국의 '충실한' 이식 침략자의 선봉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방침에도 훈련소에는 크고 작은 분규가 발생하였다. 입소된 훈련생도 사이의 다툼, 기존 주민과 마찰, 간부 명령에 대한 불복종 등 사건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인의 집단 이주에 대한 필요성이 역설적으로 제기되기에 이른다. 그 이론적 대안과 이주의 설계를 추진한 '주역'이 윤상필이다. 그에 대한 자료는 다른 육사 27기 동기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만주사변 당시 관동군의 일원으로 피난 이주민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참여하였고, 만주국의 행정 관료로 만개했던 그의 후반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¹⁾

그는 1887년 함경남도 함주군 천서면에서 출생했다. 향리에서 전통교육을 받은 그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마지막 생도로서 일본 육사 27기로 졸업하였다. 재학 당시 일본인들과 경쟁해서 늘 우등상을 차지한 인재였다. 졸업한 후 일본 육군에 복무하다가 퇴역한 후 만주국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손끝에서 수많은 한인들이 만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마지막 생도이자 일본 육사 27기생인 윤상필의 생애와 활동을 조명하고자 한다. 윤상필은 1932년 군인 신분으로 만주국의 이데올로기인 '오족협화'의 실현자로서 활동하였다. 당시 관동군사령부 참모부 소속으로 홍사익과 함께 활동했던 윤상필은 군인을 길을 뒤로 하고 만주국 관료로 '영달'을 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간도지역 친일단체의 상징이었던 '간도협조회' 설계자로 그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1) 지금까지 윤상필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없다. 이기동 교수의 『비극의 군인들』에서는 윤상필을 크게 다루지 않고 있으며, 해방 후 윤상필의 행적에 대해서도 소련군에 의해 시베리아에 끌려가 후에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고만 했다(이기동, 『비극의 군인들』, 일조각, 2020 참조). 이원규 작가는 그의 저서 『애국인가 친일인가』에서 윤상필을 소련군에 체포되어 유형지에서 사망했다고 한다(이원규, 『애국인가 친일인가』, 범우사, 2019, 171쪽). 윤상필 관련 자료는 친일파 관련 자료집 등에 수록되어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 - 일제의 해외 조선인 통제와 친일협력(1931~1945)』, 2009; 정운현, 『친일파는 살아있다』, 책으로 보는 세상, 2011. 그의 생애에서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와 일본 육사의 생활을 밝히기 위해 대한제국관보와 일본관보 및 일본 육군성 문서 등을 활용하려고 한다.

수행하였다. 특히 간도협조회의 '특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일제의 밀정을 후원하고 친일 민간인들을 후원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윤상필은 박석윤과 함께 이 기관의 총무를 맡았다. 그는 밀정과 친일단체를 조직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한국인들을 만주로 '강제이주'시키는 데 결정적인 설계자로서 역할을 맡았다. 이 글에서 주로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그의 활동을 분석했다.²⁾

1935년 윤상필은 만주국 민정이사관으로 임명되어 척정사 제2과장을 맡아 한인 이주와 그 정착 및 농업 개척 사업을 담당하였다. 그는 만주사변 이후 신문과 잡지에 수많은 기고문이나 논문을 통해 일본에 충성하는 장교로서의 '공지'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만주국 협화회 설립 당시 이사진 42명 가운데 유일한 조선인의 한사람이었다. 이 단체는 일본 관동군의 지도 아래 민족협회의 이데올로기를 내걸었던 선전단체였다. 그는 만주국 지배체제 안으로 인민을 끌어당기고 항일투쟁에 대한 내부 교란과 파괴공작을 수행하였다. 그만큼 만주국 내 입지가 확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패전 후 만주에서 소련군에게 체포되어 시베리아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2) 일반적으로 강제이주는 1937년 10월 연해주지역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것을 지칭한다. 하지만 만주지역으로의 강제이주는 중일전쟁 전후 '개척민'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만주지역 한인의 강제이주 정책의 실행자가 바로 윤상필이다. 만주지역 한인의 강제이주와 윤상필에 대해서는 유필규, 『滿洲國시기 韓人의 강제이주와 集團部落연구』, 국민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94~96쪽 참조. 유필규는 만주지역 한인 강제 이주 정책에 관여한 인물로 윤상필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3) 이원규 작가는 필자가 만주지역 한인이주에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1937년 이후 개척민의 이주를 설계했던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윤상필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해주었다.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윤상필의 시베리아 생활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시베리아 유형생활을 밝히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윤상필 개인에 대한 역사적인 단죄보다는 후대에 대한 '비겁한 변명'이 든 아니든 그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100여 년전 대한제국 엘리트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복원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와 군대해산 및 마지막 생도들의 일본행을 살펴보면서 제국 일본의 군인 '친일파' 키우기의 단면과 윤상필의 육사 시절 및 일본군대 생활, 만주사변과 관동군사령부 전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가 국가적, 민족적 위기 속에서 자신의 영달을 꾀하였던 만주국 관료 시기를 집중적으로 추적하려 한다.

II.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일본육사 생활

윤상필은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에 1908년 9월에 입학하였다.⁴⁾ 대한제국 군부에서는 1907년 9월 육군 무관학교 학도 50인을 加選하기 위해 한문, 독서, 작문, 산술, 역사, 地誌, 외국어를 시험으로 치러야 했다. 입학 연령은 18세에서 20세로 한정하였다.⁵⁾ 이때 모집되어 입학한 인물들은 홍사익, 지청천, 조철호 등이다. 다음해 1908년 10월 10일자로 대한제국 무관학교 생도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지원자는 11월 25일까지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했다.⁶⁾ 윤상필은 이때 1,000여 명의 지원자 가운데 선

4) 그와 함께 육군무관학교에서 수학했던 홍사익, 지석규, 이응준이 각각 육군유년학교, 배재학당, 보성학교를 다니다가 무관학교 입시에 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상필 역시 기존 교육기관에서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에 들어가기 전 향리 또는 서울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5) 『大韓帝國官報』 광무 10년 9월 11일, 「유년학교 무관학교 생도모집」.

6) 『황성신문』 1908년 10월 20일, 「육군무관학교 생도 25명을 모집할 터이니」.

발되어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마지막 생도로 남게 되었다.⁷⁾

1909년 9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는 폐교 절차를 밟았다. 군부가 폐지되면서 무관학교 역시 그 운명을 같이하게 되었다.⁸⁾ 1908년 5월 무관학교 교장 노백린이 퇴임하고 이희두가 교장으로 임명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사건이었다. 일본 육군성과 한국주차군은 명맥만 남은 대한제국 군부와 무관학교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였다. 이른바 남한대토벌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던 한국주차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한제국 군부의 존재를 용인할 필요가 없었다. 1909년 7월부터 수많은 문건들이 현해탄을 건너 대한제국 무관학교 학생들을 일본으로 데려가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⁹⁾ 결국 1909년 7월 30일 조칙이 내려져 무관학교의 폐교가 결정되었다. 1909년 8월 2일 무관학교 교장 육군참장 이희두와 생도들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¹⁰⁾ 이 자리에서 이희두는 융희황제가 내린 칙령을 읽었다.

짐이 앞으로 신민들의 발달 정도를 보아 增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까지는 군부와 무관학교를 폐지한다. 현재의 군사는 궁중에 친위부를 설치하여 이를 관장하게 하고 사관 양성은 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해서 군사 일에 숙달하게 하는 바이니 너희 백성들은 짐의 의도를 잘 헤아리라.¹¹⁾

7) 김좌진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는 그가 1907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명시하였다. 주지하듯 김좌진은 한국독립운동에서 거목이었다. 오히려 학력에 대한 부정확한 표기는 그의 위대한 업적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17일, 「무관학교 폐지」.

9) 「陸軍武官學校 生徒 學歷程度 人員別表」, (1909년 7월 28일, 駐劄甲 第704호).

10) 『密大日記』, 「武官學校生徒解散の狀況に関する件」, 1909년 8월 2일 기밀제2329호-1.

11) 『密大日記』, 「武官學校 生徒 解散の狀況に関する件」, 1909년 8월 5일 機密通發 제 1405호.

경시총감은 현장에 경찰을 파견하여 이희두의 해산 선언과 생도들의 항배에 대한 상황을 통감에게 보고하였으며, 통감은 육군대신 寺內正毅에게 전문을 보냈다.¹²⁾ 9월 10일 이전까지 자택에 대기하고 있으며, 총 45명 생도 가운데 일본으로 유학하는 생도는 44명이라는 내용이였다. 제국 일본은 한국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유년학교의 정원을 늘렸다. 그리고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파견 교관이었던 小倉祐三郎 육군 대위 등을 한국 학생들의 학과 담당으로 배정하였다.¹³⁾ 일본으로 가게 된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마지막 생도들의 전체 시험 성적이다.

〈표〉 한국육군무관학교학생유학생 명부(총43)

순위	이름	연령	유년학교 학년	학과	술과	성질/躬行	체격
				입어/기타	교련/체조		
1	염창섭	19년 1월	2	갑/갑	중/중	直敏/方正	強壯
2	홍사익	20년 5월	2	갑/갑	중/優	質直/方正	壯
3	지석규	21년 5월	2	갑/갑	중/중	솔직/방정	장
4	유승렬	18년 3월	2	갑/갑	우/우	침착/방정	강장
5	권영한	21년 7월	2	갑/갑	중/劣	優柔/正	조약
6	신태영	18년 2월	2	갑/갑	중/우	민첩/방정	장
7	이용준	18년 1월	2	갑/갑	중/우	온직/방정	강장
8	안종인	18년 2월	2	갑/갑	우/우	質朴/방정	조약
9	이호영	19년 2월	2	갑/갑	중/우	민첩/정	강장
10	조철호	19년 4월	2	갑/갑	중/우	朴直/정	강장
11	이은우	20년 2월	2	갑/갑	중/우	直/정	장
12	박승훈	20년10월	2	갑/갑	중/열	직/단정	장
13	민덕호	22년 1월	2	갑/갑	중/중	박직/端正	장
14	김준원	18년10월	2	을/을	중/중	輕淳/정	장
15	남상필	17년	2	을/을	중/중	온화/정	장
16	이건모	19년 6월	2	을/을	열/열	온화/정	조약

12) 『密大日記』, 「武官學校生徒解散の狀況」機密通發제1405호, 1909년 8월 5일.

13) 『密大日記』, 「韓國士官養成其他に関する件」참제 594호, 1909년 8월 12일.

순위	이름	연령	유년학교 학년	학과	술과	성질/躬行	체격
				일어/기타	교련/체조		
17	이희겸	20년 8월	2	을/을	중/중	우직/정	조약
18	장성환	18년 8월	2	을/을	중/중	온화/정	조약
19	원용국	17년 9월	1	을/을	열/중	00/단정	강장
20	윤상필	19년	1	을/을	열/열	질박/방정	강장
21	장석륜	17년 5월	1	을/을	중/중	민첩/방정	강장
22	서정필	17년 7월	1	을/을	중/열	민첩/방정	장
23	박창하	15년 6월	1	을/을	열/열	온순/방정	조약
24	민병은	17년 6월	1	을/을	열/열	솔직/방정	강장
25	김중식	18년 11월	1	을/을	열/열	우직/방정	장
26	강우영	18년 11월	2	병/을	중열	우직/정	장
27	장기형	22년 3월	2	병/을	중/열	우직/정	장
28	이강우	21년 8월	2	병/을	중/열	우직/정	조약
29	류춘형	18년 8월	1	병/을	열/열	침착/방정	조약
30	김석원	15년 10월	1	병/을	중/중	민첩/방정	조약
31	장유근	18년 6월	1	병/을	열/중	민첩/정	강장
32	이동훈	19년 4월	1	병/을	열/열	우직/정	강장
33	이응섭	17년 11월	1	병/을	열/열	질박/정	장
34	김중규	16년 3월	1	병/을	열/열	침착/방정	조약
35	류관희	18년 2월	1	병/을	열/열	온순/방정	조약
36	백홍석	19년 6월	1	병/을	열/열	솔직/방정	강장
37	이중혁	18년 11월	1	병/을	열/열	온순/방정	장
38	정동춘	18년 0월	1	병/을	열/열	온순/방정	조약
39	신우현	18년 09월	1	병/을	열/열	온순/방정	조약
40	윤우병	19년 6월	1	병/을	열/열	조방/정	강장
41	남태현	18년 3월	1	병/을	열/중	활발/단정	조약
42	김인옥	18년 3월	1	병/을	열/중	활발/단정	강장
43	이교석	17년 1월	1	병/을	열/열	조방/정	장

* 「韓國陸軍武官學校 留學生 名簿」, 駐劄甲第316호, 1909년 7월 30일.

윤상필은 흥사익이나 지청천, 이응준과 같이 선배들과의 경합에서 전체 43명 가운데 20등을 차지하였다. 그의 동기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적

을 보였다. 대한제국 무관학교 1년 선배들이 예과 3학년으로 입학하였으며, 자신은 2학년으로 편입되었다. 유년학교의 생활은 대한제국의 교과목과는 달랐지만 이미 대한제국 무관학교 생도시절부터 일본인 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이들의 활동은 국내외에도 관심을 많이 받았다. 1911년 예과를 마치고 2년 과정의 본과로 올라갈 때 『신한민보』¹⁴⁾와 『매일신보』에 그의 소식이 실렸다.

일본 중앙유년학교 재학 조선인 학생은 예과 제3학년 수료 윤상필, 원용국, 백홍석, 박창하, 장석륜, 서정필, 김종식, 김석원, 이강우, 민병은, 이응섭, 남우현, 이희겸, 이종혁, 정훈, 김중규, 유관희, 장유근, 장기형, 이교석, 이동훈, 김인옥, 강우영 23명. 성적순. 9월 1일 본과 제1학년 편입 윤상필은 韓日人 학생 중 최수석으로 일본 황태자상 은시계 1개를 받았다.¹⁵⁾

윤상필은 유년학교 본과를 마칠 때에도 성적 우등으로 은시계를 또 받았다.¹⁶⁾ 유년학교 예과와 본과 과정을 마치고 도쿄 주둔 제1사단 예하 기병 15연대에 배속된 윤상필은 그곳에서 육사 입학에 문제없음이라는 진단을 받고 1913년 12월 1일 육사에 입학하였다. 일본 육사는 교육 기간이 1년 반으로 짧다.

윤상필은 1915년 5월 26일 일본 육사를 27기로 졸업하였다.¹⁷⁾ 그는 다시 기병 15연대로 가서 반년간 견습사관 과정을 끝내고 그해 12월 1일 육군소위로 임관하였다. 1918년 조선군사령부로 전속된 그는 용산 제20사단

14) 『신한민보』 1911년 8월 9일, 「한국유학생 졸업」; 『신한민보』 1911년 9월 3일, 「일본유학 사관학도」.

15) 『毎日申報』 1911년 8월 20일, 「유년학교 졸업」.

16) 『毎日申報』 1913년 5월 31일, 「선인사관후보생」.

17) 『毎日申報』 1915년 6월 18일, 「금번사관학교를 졸업한 청년」.

보병 제40여단 예하 기병 제28연대에서 근무하였다. 1919년 4월 윤상필은 원용국·박창하 등과 함께 기병 중위로 진급하여 연대의 경리 책임을 맡았다.¹⁸⁾ 무난히 일본 육군 장교 생활을 영위하였던 그는 1925년 대위로 진급, 기병중대장을 맡았다. 1929년 7월에는 훈6등 훈장을 받으면서 일본 육군 장교로서의 입지를 다져갔다.

III. 만주사변과 ‘재만 한인 구제 활동’

1931년 9월 18일 관동군이 북대영을 공격하면서 발발한 만주사변(9.18)은 만주 전역의 이주한인들에게는 하나의 재앙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관동군에 패한 중국 동북군 패잔병들은 남만철도 연선의 이주한인 마을을 습격하고 한인들을 살해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윤상필은 관동군사령부로 전속되었다.¹⁹⁾ 그는 이주 한인들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때 조선군 兪玉 참모장은 한인 동포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²⁰⁾ 윤상필은 유승렬과 함께 장춘과 봉천에서 이주 한인들의 피해상황을 살폈다. 현장에서 한인들을 조사하면서 「만주시국에 관한 선인 동포에게 말하다」라는 의견을 관동부 사령부에 제출하였다. 내용은 이주한인 동포들은 엄청난 전란 속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점차 호전될 것이

18) 『每日申報』 1919년 4월 20일, 「조선인장교 승진」.

19) 윤상필은 관동군 참모부에 배속되어 나남 기병대장 古賀 대좌가 이끄는 연대의 만주사변 출정기를 영화로 만들 것을 계획하였으며, 南光明을 주연으로 하는 영화를 완성하였다(『조선신문』 1932년 2월 2일, 「古賀聯隊의 奮戰」).

20) 『每日申報』 1931년 10월 4일, 「거주동포 보호로 조선부대가 출동」.

며 이때 불온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²¹⁾ 윤상필의 활약상은 국내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다.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나는 만주에 와서 100만으로써 헤아리는 재만동포의 일대은인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용산 제십팔연대의 기병대위 윤상필씨와 보병대위 유승렬씨의 두 무관이 각기 자기들의 동족을 위하여 불퇴풍우하고 동분서주하는 것이다. 윤대위는 목하 봉천에 있는 관동군사령부에서, 류대위는 제15연대가 주둔해 있는 길림에서 각기 군무에 정근하는 한편 특히 조선동포의 일에 대하여서는 침식을 잃고 노력을 하는 까닭에 만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조선동포는 누구나 윤대위와 류대위를 모르는 이가 없다.²²⁾

이렇게 대대적인 언론 홍보에 힘입어 윤상필은 다음해 1932년 2월 경성에서 이주 한인 농업경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1주간 예정으로 조선총독부와 협의하였다.²³⁾ 그는 2월 8일 조신히텔에서 조선군 아육참모장과의 다과회에서 재만 한인을 구제하는 것이 화급하며 피난민이 14만 명이며 살해된 한인도 179명이라고 했다.²⁴⁾ 윤상필은 국내에서 『조선급만주』에 「재만조선인의 구제에 관해서」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은 크게 4장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만주사변 이후 피난민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둘째 원주지에서 농업을 운영하지 않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 셋째 만주사변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하는 것, 넷째 장래 보호정책을 어떻

21) 아시아역사자료센터, 「避難鮮人の不穩言動과 關東軍 尹大尉の戒告文」, 關機高鮮 제5381-2(1931년 11월 30일). 이와 같은 보고 내용은 1931년 11월 26일자 『동아일보』에 그대로 게재되었다.

22) 『毎日申報』 1931년 11월 15일, 「재만백만동포 수호의 양거인」.

23) 『동아일보』 1932년 2월 4일, 「아사선사의 재만동포, 금년농자가 또 문제」.

24) 『동아일보』 1932년 2월 9일, 「화급, 구제를 요하는 재만동포 14만」.

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였다.²⁵⁾ 이 글에서 윤상필은 피난민이 창궐하는 요녕성 지역에 주목해야 하며, 장학량 군대의 패잔병들이 한인 농촌을 습격한 상황에서 재만 동포를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윤상필은 집단 거주, 자위단 조직, 자작농 창정, 교육 및 의료기관의 설치를 통해서 재만 한인의 구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그가 이후 만주국 척식국의 고급관료로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 같다. 만주국으로 귀환한 윤상필은 국내 언론사에 장문의 글을 보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몽에 재주하는 아 조선동포의 인구는 현재 통계로 약 70만이 되었으나 각종 관계상 조사치 못한 것이 많으며 상세히 조사하면 넉넉히 100만은 초과 하리라 생각한다. 그 재주 구역은 거의 전 만몽에 산재하여 있으며, 그 가운데 간도 즉 연길, 화룡, 왕청, 훈춘 4현을 최대로 하는 바 약 38만 명, 그 대부분은 요하 이동 및 동중선 부근 지역 이남에 재주하고 있다. 그 90%는 농민으로 수 전경영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만주에 쌀 생산액은 약 200만석으로 거의 조선 동포의 손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만주는 토지가 아주 비옥하여 곳이므로 농산물이 대단히 잘되는 관계로 조선동포의 생활은 비교적 윤택하였으나 6,7년전 중국 관헌의 배외열이 극성맞았고 또 三矢協定 등을 악용하여 재만 동포를 방축할 방침을 세워 모든 착취와 모든 압박을 가하였다. 생지옥의 생활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하략)²⁶⁾

윤상필은 또 다른 언론사에 한인들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수전농법과

25) 尹相弼(在奉天陸軍騎兵大尉), 「在滿鮮人の救濟に就て」, 『朝鮮及滿洲』 1932년 2월 (제291호).

26) 『每日申報』 1932년 3월 12일, 「작일까지의 생지옥은 금일의 낙토이다」.

만주 개척에 관한 내용을 발송하였다.²⁷⁾ 이때는 만주국이 성립된 직후였다. 그는 만주사변, 재만동포의 상황을 15회에 걸쳐서 자세하게 보고하고 강연하였음을 강조하였다.²⁸⁾ 그는 북만지역 피난민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하얼빈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하얼빈 지역은 대전자령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국 길림군 李杜²⁹⁾와 丁超 등이 반만항일군을 형성하여 관동군과 교전하고 있었다.³⁰⁾ 윤상필은 이들 군대의 보고

27) 『동아일보』 1932년 3월 16일, 「수전은 조선인 독립 유망한 만주개척」.

28) 『朝鮮新報』 1932년 2월 15일, 「귀선의 감상. 尹大尉語」.

29) 李杜(1880-1956)는 중국에서도 항일장령으로 인정한 군인이며, 길림성 자위군총사령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본명은 李荫培이며, 자는 植初이다. 요녕성 출신으로 정통군인 출신이었으며, 만주사변 이후에는 항일의 선봉에 서게 된다. 정초는 변절하여 漢奸으로 낙인찍혔다.

30) 한국독립당은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10월 18일 남대관, 권수정을 중심으로 한족 연합회, 국민부, 한족농무회, 조선혁명당 등의 대표 30여 명을 石頭河子에 소집해 시국대책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중국군과 공동전선을 펴 일제에 대항하기로 결정하였다. 1931년 11월 五常縣 大石河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장래의 대일 항전과 중국군과의 합작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하였다. 지칭천은 고립 분산적이며 소규모의 유격전으로는 새로운 전황에 대응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항일 무장 역량 강화를 위해 한족 연합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한국독립당은 11월 10일 중동선 철도 연변을 중심으로 각 군구에 총동원령을 내려 소집과 징모를 실시하면서 지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독립군을 조직하였다. 초창기 한국독립군은 병력 규모면에서 대규모 병력으로 출발하기에는 무리였다. 따라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병력문제와 중국군과의 연합문제였다. 따라서 총사령 지칭천은 징모위원을 선임하고 각 군구에 파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독립군은 11월 12일 신숙과 남대관을 중국군 李杜와 鄭超부대에 파견하여 한국독립군과의 합작을 협상하였다. 첫째 한중양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장기 항전을 맹세한다. 둘째 중동철로를 경계로 하여 서부전선은 중국군이 맡고, 동부전선은 한국독립군이 담당한다. 셋째 한중양군의 전선 후방교련은 한국장교가 맡고, 한국독립군의 소요일체자료는 중국군이 공급한다(한국총교회회, 『백강회고록』, 96쪽). 장비와 병참의 부족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한국독립군은 대일항전의 의지를 높이면서 중국군과의 연합전에 전력을 다하였다. 정초, 이두 등이 誠允을 길림성 주석으로 추대한 길림성 정부가 빈현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제는 하얼빈을 점령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하얼빈에 집결 시켰다. 1932년 1월 길림

와 영고탑 지역 독립군을 비롯한 반만항일 군대의 동태를 파악하였다. 그는 “내가 하얼빈에 체재 중에도 열차마다 속속 피난하여 오는 터이었다. 지난번 열차전복 사건 당시 그 열차에도 130명의 피난민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 약간명은 필경은 부상까지 하였다 목하 피난민수는 하얼빈에 4천여 명”이라고 보고했다.³¹⁾ 윤상필은 1932년 6월 경성으로 들어가 국제연맹 조사단이 경성을 통과하여 동경으로 간다는 계획을 조선총독부 당국과 장시간 협의하여 조사단의 구체적인 일정을 충분히 협의하였다.³²⁾

만주국 성립 이후 한인 이주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었다. 즉 자울이라는 무대에서 타울이라는 무대로의 이전을 뜻하기도 하였으며, 타울 속에는 통제와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관동군의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성립된 만주국은 건국 이념을 협화로 내세우면서 그 반대세력에 대한 철저한 ‘탄압의 기술’을 선보였다. 이른바 치안숙정을 실시하였으며, 항일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 ‘안전농촌’의 탄생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만주사변, 만주국 성립 과정에서 파생된 안전농촌의 설립은 한인에게는 강제성의 또다른 울타리이기도 하였다. 안전농촌을 ‘안전’하게 세운 일제로서는 ‘치안의 담보’와 수탈의 가속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었다.

윤상필은 만주국에서 야심차게 계획했던 만주국협화회(이하 협화회)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관동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한인 가운데는 윤상필이 유일하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협화회는 1932년 7월에 결성되었다. 왕도낙토, 민족협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협화회는 유고적 이념을 차용하여 만주사회의 안정화를 꾀하였다. 명예 총재 부의, 명

자위군과 중동철도호로군은 연합하여 하얼빈을 방어하였으나 역부족으로 결국 일본군에게 하얼빈을 내주고 말았다. 이에 따라 하얼빈과 빈현 길림성정부를 방어하기 위한 중국 항일군과 한국독립군 연합부대는 만군과 장기적이며 대규모의 전투를 치루었다(지복영, 『역사의 수레를 끌며』, 문학과지성사, 2004, 224쪽).

31) 『每日申報』, 1932년 4월 20일, 「북만피난동포들의 형용에 절한 참상」.

32) 『每日申報』, 1932년 6월 10일, 「국연조사단 통과와 당국의 경비방침」.

예고문으로 관동군 사령관이 취임하였으며, 이사로는 정부의 고급 관리가 이름을 올렸다.³³⁾ 윤상필이 관동군 소속의 대위라는 배경이 협화회 이사에 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가 아직 만주국 고급 관료가 아닌 현역 군인이라는 점에서 파격적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화회는 이른바 민족협화 이데올로기를 내걸고 만주국 지배의 정당성을 만주민중에게 주입시키고 민중생활로 침투해 들어갔다.³⁴⁾ 즉 설립 당시 협화회는 만주국 통치기구 내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민중 교화단체로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공산당 창립멤버였던 임원근의 협화회 인식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協和會는 政黨인가? 우리는 먼저 그의 綱領을 들추어보자. 綱領 : 本會는 정치상 운동을 하지안치만 그 운용의 목적 及 綱領은 左와 如함. 一. 宗旨 왕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군벌전제의 여독을 배제함. 一. 경제정책 農政을 진흥하고 산업의 개혁을 置重하여 국민공존의 보장을 期하고 공산주의의 파괴와 자본주의 독점을 배척함. 一. 국민사상 禮敎를 존중하여 천명에 享樂하고 民族協和와 국제의 敦睦을 도모함. 그는 그의 창립시대에 있어 어디까지든지 그가 정당인 것을 거부하고 정치운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前記한 바 그 운용의 목적 及 綱領이란 것은 그 어느 것이나 정치적 성질을 떠난 것이 없으며 경제정책이란 것은 본래부터 정치의 그것과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滿洲國建國宣言 중의 '滿洲國人民은 種族 宗教를 불문하고 凡 國家의 평등한 보호를 受함' 이라는 문구를 인용하여 '右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가치 凡 滿洲國人인 자는 滿洲民族이나 蒙古民族이나 漢民族이나 日本民族이나, 朝鮮民族이나 白晳民族이나 동등의 대우와 보호를 享受할 것은 물론이며

33) 塚瀨進, 『滿洲國-民族協和實狀』, 吉川弘文館, 2000, 81~82쪽.

34) 임성모, 「만주국협화회의 대민지배정책과 그 실태-동변도치본공작과 관련하여-」, 『동양사학연구』 42, 1993, 102쪽.

당연히 得할 권리도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滿洲國人民은 본래 現住諸民의 合流體이다. 따라서 民族協和가 天道樂土의 건설에 주요한 요소가 된다. 이것이 協和運動을 필요로 하는 제1의 이유이다.³⁵⁾

협화회는 만주국을 이루고 있는 오족관련 단체인데 윤상필은 이 단체 뿐만 아니라 재만조선인민회³⁶⁾에도 관여하였다. 1933년 봉천에서 전만조선인민회 연합대회가 개최되었을 때에도 참석했다.³⁷⁾

한편 만주사변 전 일본농민의 만주이민사업은 좌절의 연속이었다. 재만 일본인 인구는 1930년에는 약 30만명 정도였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치안이 확보된 관동주 및 만철부속지 내에만 국한되어 있었다.³⁸⁾ 이 가운데 일본인 농업이민은 1,000여 명에 불과하였다. 관동군은 만주사변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본인 농업이민 정책을 추진하였다. 수전경작으로 중심으로 한 稻作 농가 5만호를 송출할 계획과 함께 초기 안은 15년간 10만호의 일본인을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만주 농업이민에서 稻作농가에 중점을 둔 이유는 일본인 이민이 자신의 주식인 쌀을 생산할 수 있으면 자급자족이 가능하여 정착임을 강화시킬 수 있고, 벼농사는 만주재래의 농작물보다 단위당 수익이 월등히 높고 중국인이 재배할 줄 몰라 생활수준이 낮은 중국인 농가와 경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관동군은 만주사

35) 林元根, 「滿洲國과 朝鮮人將來, 滿洲國紀行(其二)」, 『삼천리』 제5권 제1호, 1933년 1월.

36) 김태국,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참조.

37) 『매일신보』 1933년 6월 2일, 「전만조선인민회 연합대회」. 이 무렵 윤상필은 그의 조상에 대한 기념비가 발견되어 언론에 크게 주목을 받았다. 그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가 지조를 지키고 죽은 삼학사 윤집의 후손이다. 봉천의 십간방 중일강습소 황윤덕이 복시장 부근에서 오래된 석비를 발견하고 이를 공개하였는데 이 때 윤상필이 봉천에 있을 때였다(『每日申報』 1933년 5월 12일, 「병자호란의 삼층사 호국정신비 발견」).

38) 김영, 『근대만주벼농사 발달과 이주 조선인』, 국학자료원, 2004, 174쪽.

변(9.18)전 일본인 농업이민 이주 경험을 토대로 농업이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자연적, 경제적 조건이 좋은 숙지와 치안이 비교적 안정되고 교통이 편리한 철도연선 지대를 선택해 대규모 수전농장을 경영함으로써 일단 이주를 성공시키고자 하였다.³⁹⁾

만주국 성립으로 일본인 이민이 급증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일제는 1934년 제1차 이민회의를 개최하여 농업이민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이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⁴⁰⁾ 1935년 7월 만주척식주식회사와 만주이민협회를 통해 10개년 100만 호 500만 명 일본인 이주 계획을 세우기에 이른다. 일본인 이민은 '이주비'의 과다 계상으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는 반대여론을 뒤로하고 추진되었다.

만주국에서 大和민족이 식민통치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피압박 민족의 항일역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본인의 대량 이민은 절대적이라는 인식이 투영된 계획이었지만, 1937년부터 194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실질적인 일본인 이주 호수는 42,000여 호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본격적인 한인 농업 이민의 시작은 안전농촌의 설치였다. 하지만 안전농촌은 이주 한인들에게는 첫 정착부터 고난의 시작이었다.

1932년 만주국 성립은 제국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추진했던 해외침략 가운데 중국 대륙침략의 절반의 성공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만주국 성립과 함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었다. 중국인과 한인들이 주축이 된 반만항일세력 즉 독립운동세력에 대한 만주국의 고민은

39) 김영, 위의 책, 175쪽.

40) 만주사변 전후 이주 한인과 중국인들이 수전을 둘러싼 갈등이 한 언론사의 오보로 촉발되어 일어난 만보산 사건과 같은 경우는 만주는 물론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만보산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주목된다(박영석, 『만보산연구』, 일조각, 1978; 고바야시 레이코, 「만보산 사건과 리튼보고서-재만조선인에 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1, 2011).

‘만주국군’과 경찰의 주요업무였던 치안숙정으로 표출되었다. 간도협조회는 이러한 가운데 탄생한 단체였다.⁴¹⁾ 윤상필은 간도협조회 창설안을 만들었다.

간도협조회는 1934년 9월 6일 일본관동군 헌병사령부 연길헌병대의 외곽조직으로 설립되었다. 간도협조회는 창립선언문에서 “일본을 맹주로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의 대동단결의 실현과 동양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⁴²⁾ 행동강령으로 반만항일군을 해체한다고 했듯이 간도협조회는 항일무장세력에 대한 ‘분쇄’를 위해 활동하였다. 따라서 연길헌병대에서 직접 지휘하는 무장단체를 두었다. 대표적으로 본부특별공작대와 협조의용자위단을 들 수 있다. 본부 특별공작대는 간도협조회의 특별행동대이다.⁴³⁾ 이 단체는 네 가지 특별임무를 띠고 활동하였다. 첫째 이주한인 사회에 진정한 친일분자를 파견하여 친일사상을 선전, 배양하는 것이며, 둘째 동만특위 각 현위의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자를 체포하거나 암살하여 항일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셋째 항일근거지에 들어가 한인들을 이간시켜 반만항일세력을 와해시키고, 넷째 일본통치구의 군중들과 항일근거지와 연계를 차단하는 것 등이다.

만주국의 면적이 한반도의 약 6배였듯이 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 공급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다. 그래서 제국 일본은 본국의 농민들을 이주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 따

41) 김주용, 『만주지역 친일단체』, 역사공간, 2014 참조.

42) 김태국, 앞의 글, 231쪽.

43) 『연변문사자료』 3, 173쪽. 간도협조회 특별공작대의 선언은 간도협조회의 그것과 크게 틀리지 않다. “백인의 침략정책과 소련의 원동에 대한 침략은 이미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목전 아시아 민족은 이것이 자기에 대한 크나큰 위협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민족은 대동단결하여 공동 합작하여 공동의 이익과 행복을 수호하기 위해 왔음을 식하고 있다.”(『조선족역사자료집』(미발간), 14쪽).

라서 이를 보완할 인적자원이 필요하였다. 필요충분조건에 가장 근접한 존재가 한반도 거주자들이었다.

이민문제가 민족발전상에 증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고 오늘 세계의 정세가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나와 정치적 혼란이 길지 못한 우리는 이 문제를 무관심하게 넘기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종종 의혹을 가지고 대하는 때가 많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 재해의 속율은 자연의 형세로 조선농민을 만주로 진출시켰으니, 말하자면 조선인의 자각 있는 활동이 있기 전에 세기는 조선민족의 대륙으로의 환원을 촉진하였던 것이다.⁴⁴⁾

만주국에서 대표적인 한인 관료인 윤상필이 피력한 '조선인 이민정책'의 한 단면이다.⁴⁵⁾ 윤상필은 주로 만주국의 토지관리 및 정책 입안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한인의 집단이주에도 관여하였다. 한인이주문제는 만주국 성립 이후 중요한 농촌 해결 문제이자 이른바 '건국이념'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시 되었다. 만주국의 면적은 일본 본토의 약 3배 정도였다. 이러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미간지의 이용방안이 적극 추진되었다. 국토의 종합적 개발을 위해 만주국 정부에서는 미간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강구하였다.⁴⁶⁾ 미간지의 정비는 산업부 대신 및 각 성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이를 집행하였다.⁴⁷⁾ 그만큼 미간지에 대한 부분은 만주국 입장에서

44) 『在滿朝鮮人通信』 59호, 7쪽.

45) 임원근, 「滿洲國과 朝鮮人將來, 滿洲國紀行(其二)」, 『삼천리』 제5권 제1호, 1933년 1월호, 53쪽.

46) 黑龍江省檔案館 編, 『東北日本移民檔案』-黑龍江省 1, 광서사범대학교, 2005, 24쪽.

47) 미간지의 원활한 개간을 위해 정비심의기관으로 만주국정부는 중앙, 성 및 현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설치하였다. 첫째 개척위원회 제1분과회(개척용지정비관계)

는 가장 중요한 농업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다시 말해 만주에서의 미간지 개척과 수전 개발의 화두는 ‘한인’을 배제하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⁴⁸⁾

윤상필은 1933년 1월 관동군에 조선반이 설치되자 그 연락원으로 활동했다. 1년만에 경성에 온 윤상필은 1월 12일 조선군기자단에게 “만주국의 발전은 순조로우며 재만한인의 구제를 위해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⁴⁹⁾ 그는 그해 8월 육군 소좌로 진급하였으며, 바로 군복을 벗고 만주국 민정부 촉탁으로 관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⁵⁰⁾ 그리고 다음해인 1935년 그는 특지로 서훈을 받았다.

를 두어 미용지정비방침 및 정비지구에 관하여 심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둘째 성개척위원회 토지분과회(가칭)는 성개척위원회 방침 및 정비지구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였다(黑龍江省檔案館 編, 『東北日本移民檔案』-黑龍江省 1, 24~25쪽).

48) 김기훈, 「만주국시기 조신인 이민담론의 시론적 고찰-조선일보 사설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1, 2011, 135~138쪽.

49) 『동아일보』 1933년 1월 14일, 「인구문제는 만주이민으로」.

50) 「軍部に 잇는朝鮮人士官」, 『삼천리』 제6권 제9호(1934. 9). 윤상필에 대한 인물평은 다음과 같다. 20師團 管下인 騎兵 第28聯隊附士官으로 龍山軍營에서 偉丈夫風의 그 巨軀를 자랑하다가 滿洲事變이 이어나자 곧 關東軍司令部府로 가잇는 이에 尹相弼大尉가 있다. 「尹大尉」 「尹大尉」라 하여 이분의 일홈은 相當히 世間에 알려 지었스니 事變後 氏 다시 朝鮮에 도라와 지금은 어느 聯隊長으로가잇는 金子大佐等과 더불어 서울公會堂에서 滿洲事變演說會를 각금 開催하였고 또 한번은 朝鮮人側 有志들 實業界 言論界 學界 등 各方面의 人士 百餘名을 그때 軍司令部 參謀長으로 잇는 兒玉少將이 招請하여 노코 朝鮮호텔-에서 亦是 滿洲事變일로 講演會를 할 때 尹相弼 大尉도 出席하여 演說하였다. 氏는 辯舌의 才가 出衆한 듯하였다.

IV. 만주국 관료 : '왕도낙토' 선전의 침병활동

해방 이후 반민특위에 피의자 曹秉相을 심문하면서 언급된 윤상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石原은 如何인물인가.

답 육군중장이 온데 關東軍 參謀였습니다.

문 石原과 知面일시는 如何.

답 단기 4271년[1938] 4월 滿洲 長春에서 만났습니다.

문 石原을 알게 된 동기 如何.

답 조선인 日軍將校 윤상필[尹相弼]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문 당시 石原과 면담내용은 如何.

답 조선인 처우개선문제로서 일본인과 同日한 처우요구인데 본인의 설명은 한일합병 당시 明治天皇의 조서에 「民衆は 直接 朕が 慰撫の 下に在り 其の 幸福き 増進すベシ」라는 사실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별 처치라는 것은 일본식민정책에 부당성□□인바 □□아닌가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문 石原은 피의자 이론에 공명하였는가.

답 본인의 이론에 공명할 뿐 아니라 石原 자신으로서는 만약 조선인문제를 明治天皇의 조서 구절과 如히 처우를 못할 일본 식민정책이라면 차라리 조선은 독립국을 인증함이 타당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문 石原이 조선의 독립국을 인증한다고 해서 독립을 할 수 있었는가.

답 자기의 의사이며 그 문제에 노력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문 石原은 현재 무엇을 하는가.

답 잘 모르겠습니다.⁵¹⁾

조병상은 만주사변 이후 박석윤 등과 함께 민생단을 조직하였으며, 중추원 참의 및 조선지원병후원회 이사를 맡았다. 그의 아들을 지원병으로 보내 주목받기도 했다. 이러한 인물과 교류하였던 윤상필은 자신의 경력(일본 육사)을 바탕으로 조선의 유력자들을 만주국과 연계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윤상필은 1935년 11월 민정 이사관으로 임명되어 拓政司 제2과장을 맡아 만주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 농업 개척사업을 담당했다. 1932년 3월에 성립된 만주국의 국무원은 교통부, 사법부, 외교부, 군정부, 재정부, 산업부, 민정부로 조직되었으며, 윤상필이 근무했던 민정부는 1937년 민생부로 부서 명칭을 바꿨다.⁵²⁾ 1935년 만주국의 한인 행정 관리는 지방청에는 간도성 민정청장 간임관(칙임관) 金秉泰, 간도성 민정청 실업과장 劉鴻洵, 민정청 학무과장 尹泰東 등이 있었다.⁵³⁾ 1937년 4월 윤상필은 재만 조선인통신사 서법석과의 대화에서 만주지역 이주 한인 통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다.

서법석 : 조선 이민을 통제한다는 말이 조선농민을 제하한다는 말로 들리는 경향이 있어 흔히 만주건국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윤상필 : 조선이민을 통제하는 것은 조선농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요. 또 조선농민의 이주를 국가가 직접 지도하는 데 필요한 사무적 방법이올시다. 그러면 조선 농민은 국가각 직접 지도를 하지 않았을 때도 많이 왔으며 만족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나 만주에 뿌리를 박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간섭적 지도를 하지 않더라도 조

51) 반민특위 「조병상」자료.

52) 塚瀬進, 앞의 책, 27쪽.

53) 『삼천리』 제9권 제4호(1937. 5).

선 농민은 그대로 방임하여 두면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일본 이민 보다 훨씬 많이 올 수 있다고 반박하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만주국이 1개단 1민족 국가가 아니고 5족의 국가인 이상 각기 민족에 적응한 정치와 지도가 필요한 것이 올시다. 만주국의 구성 민족의 질과 환경과 의식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아니다.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장려치 아니하면 잘 오지 아니하는 민족에 대하여는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방임하여도 잘 오는 민족에 대해서는 만주에서 다른 민족과 사이 좋게 잘 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올시다. 이러한 관계 즉 만주국 건국 정신과 이민은 서로 어떠한 방법을 규정하게 되었는데 그 규정된 방법이 이민 통제가 되어 일본 이민은 이렇게 조선 이민은 저렇게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국 건국 정신을 잘 이해한다면 당연히 이민 통제의 의의와 정신을 아울러 이해하게 될 것이오.⁵⁴⁾

위의 대답에서 볼 수 있듯이 윤상필은 만주지역 한인이주와 관련하여 만주국 건국 정신 즉 오족협화를 강조하였는데 이미 그해 2월 11일 협화회 기구 내에 朝鮮人輔導委員會를 특설하여 재만 한인 150만명은 모두 협화회 중앙본부에 참가하여 국민 皆勞운동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참가인은 윤상필을 비롯하여 참의 李範益, 秦學文, 金應斗, 李性在 등이었다.⁵⁵⁾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33년부터 『만몽일보』 기자로 활동한 신영우는 1937년 만주국의 한인 정책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설파하였으며, 향후 한인 이민은 어느 정도 통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⁵⁶⁾ 만주

54) 『재만조선인통신』 27(1937), 2~3쪽.

55) 『每日申報』 1942년 2월 12일, 「조선인보도위원회 협화회 기구에 특설」.

56) 『재만조선인통신』 26(1937), 2쪽.

사변 이후 이주 한인들의 생활이 ‘명랑’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직접 통제해야만 만족할 만한 이주와 생활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1939년 전체 집단 이민은 총 3,000호로 계획되었다. 만주국의 간도성, 봉천성, 길림성, 통화성, 묵단강성 5개 성에 집중적인 정착지가 마련될 예정이었다. 전북인들의 예를 들면, 그들은 안도현에 정착하였으며, 모두 591호이다. 안도현에는 이미 전북인들이 정착하고 있던 전북둔, 정읍둔, 장수둔에 추가 입식을 하였으며, 새로 익산둔이 신설되어 44호가 정착하였다.⁵⁷⁾ 그런데 전라북도인들의 이주지가 연변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전라북도에서는 선만척식회사와 함께 1940년 이주할 600호를 선정하여 그 가운데 선건대로 120호를 보낼 계획을 세웠다. 담당 부서인 전라북도 사회과에서는 전북인들을 처음으로 蘇滿 국경지대인 北安省 嫩江지구에 입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선발된 ‘개척민’의 현지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 달간 훈련시키고 이주케 하였다.⁵⁸⁾

한편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총독부와 선만척식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북인들의 만주 입식에 대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국책사업에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전라북도이민협회 설립을 1938년부터 추진하였다.⁵⁹⁾ 전라북도의 인구가 1938년 기준 1,502,000여 명으로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만주와 北鮮에 이주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2년 뒤인 1940년 7월 경에 확정되어 전라북도이민협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협회에서는 인구문제뿐만 아니라 ‘鮮滿一如’ 정책 밑에서 국책적 사명 완수를 목적으로 한다고 선전하였다.⁶⁰⁾

1938년 1월 29일 밤 만주국 산업부 척식사 제2지도과 과장 윤상필은

57) 『每日申報』 1938년 12월 13일, 「만주국 집단이민의 입식할 지역 결정」.

58) 『每日申報』 1938년 8월 21일, 「명춘만주개척민 전북서 600호 선발」.

59) 『每日申報』 1938년 11월 30일, 「전북이민협회 조직 농후」.

60) 『每日申報』 1940년 7월 5일, 「신대륙개척에 박차 전북이민협회 결성」.

이민사무 협의차 서울에 들어 왔다. 그는 국내에 들어와서 한인 이민 상황을 시찰하고 다시 평강군 세포에 있는 만선척식회사의 훈련소를 3일간 방문하였다. 그는 조선총독부 이민 통계와 한인 이민에 관한 전반적 문제를 협의하고 만주국의 한인 이민 현상은 안정되었다고 설파하였다.⁶¹⁾ 이러한 논리는 그대로 국내 언론에 수용되었다. 잡지 『삼천리』에는 만주국 한인 이민 정책의 효과를 만선척식회사를 통해서 거둘 수 있다고 독자들에게 전했다.

在滿朝鮮人の 직업은 安定 농업이 大業으로 총호구의 8할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자작농과 지주는 극히 적고 대개는 소작인으로 滿洲人の 토지를 소작하는 것이 많으니 이는 滿洲동포의 대개가 赤手空拳으로 문자 그대로 男負女戴하고 건너간 것과 舊支那 東北政權이 절대로 朝鮮人을 압박한 때문으로 생활향상의 길을 얻지 못한 까닭이었으나 건국 후에는 지주의 無道한 착취가 없어지고 치안이 恢復되고 정부가 보호함으로 현저히 생활이 안정되어 가는 중에 있는데 더욱 日滿 兩國정부의 國策的 기관으로 설립된 朝滿 拓殖株式會社와 그 자매기관인 滿鮮拓殖會社에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자작농 創定을 시작하고 또는 治外法權廢 前에 많이 있던 不正業者와 浮動農민을 농촌에 집결하고 또는 새로 朝鮮서 들어가는 농민들을 入植식하여 4町步 평균의 경지를 나누어주고 농자금은 貸與하여 영농케 함으로 장차로는 이전에 보든 바와 같은 소작인의 참상이 점차 해결될 것입니다. 朝鮮農민의 滿洲이주와 滿洲拓殖會社와의 관계는 唇運輔車와 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 자금없는 농민의 滿洲이주에는 없어서 안될 기관인데 昭和 12년 이래 금년 봄까지 이 회사의 손은 거쳐 渡滿한 농민이 14,430戶에 61,761人이며 또 滿洲國에 살든 浮動農가와 不正業者를 집결 안정시킨 것이 1,047戶에 3,600여 명이나 됩

61) 『每日申報』 1938년 2월 1일, 「조선이민안정」.

니다. 이 외에 회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단독 渡滿하는 소위 分散開拓民도 상당한 數字에 달할지나 이것은 분명한 통계가 없으므로 알 수 없습니다. 대체로 집단집합 등 단체로 사회의 손을 거처 渡滿하는 개척민에게는 朝鮮總督府로부터 여비 40원을 비롯하여 약 80여 원의 보조금을 주고 또 滿洲國에서도 이와 동액의 조성금을 내어 주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으로 朝鮮개척민의 장래는 실로 양양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⁶²⁾

1940년 2월 윤상필은 만주국의 개척총국 참사관으로 승진하였으며, 훈3위 주국장이라는 훈장을 받았다.⁶³⁾ 이 때 윤상필은 제국주의 일본의 창씨개명 정책 하에 伊原相彌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협화회 거주 한인들로 조직된 수도계림분회 고문을 맡았다.⁶⁴⁾ 1942년 수도계림분회는 만주국 수도인 신경(현 장춘) 영락초등학교 강당에서 재만 한인 1천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징병제도 실시 축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른바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진흥보국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⁶⁵⁾ 윤상필은 1942년 징병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다.

우리들에게도 징병제도가 실시되리라는 것은 진즉부터 믿고 기다렸던 것

62) 金東進, 「建國 十年의 滿洲國과 朝鮮人 近況, 朝鮮內 資本의 進出과 人物의 集散等」, 『삼천리』 제12권 제9호(1940.10).

63) 『每日申報』 1940년 2월 12일, 「윤상필씨와 윤태동씨 영전」.

64) 계림분회는 협화회 조직 가운데 유력 이주한인들로 구성되었다. 예컨대 만선일보에서 필설을 날렸던 김영팔은 수도계림본부의 문화부장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협화회 수도계림분회 문화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연극반을 운영하였다. 이처럼 협화회 수도계림분회에서는 간도협조회 설립에 큰 역할을 했다가 반만항일군에 의해 살해당한 김동한을 연극반의 공연으로 준비할 만큼 친일 미화에 앞장섰다(문경연, 최혜실, 일제말기 김영팔의 만주활동과 연극 '김동한'의 협화적 기회, 민족문화사연구 38, 2008, 312쪽).

65) 『每日申報』 1942년 5월 15일, 「협화회 계림분회 주최 징병제도실시축하회」.

인데 이와 같이 빨리 실현될 줄은 몰랐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제국 신민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지만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늘 섭섭한 일이었다. 그러나 반도 청년에게도 이제야 말로 마음과 몸을 봉공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상 기쁜 것이 없다.⁶⁶⁾

그는 1942년 11월 12일 만주국의 재만한인징병제도 준비위원회의 한 인으로 유일하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⁶⁷⁾ 또한 윤상필은 개척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문화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朝鮮開拓民文化向上會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한인 개척민에 대한 첫 위문 공연으로 滿映에 의뢰하여 만주국 각지 한인 농촌에서 순회 공연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특히 1941년 9월 28일 신경의 계림분회에서 개척민 관련 회의 결과 조선개척민문화간담회로 개칭하여 위원장으로 윤상필이 선임되었다. 당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伊原相弼, 위원 田中實稻(협화회 중앙본부), 美濃谷善三郎(홍보처), 原口貢(대사관 조선과), 임한룡(만척), 伊藤養(만영), 岡田敏郎(滿藝), 朱杵魯(흥농합작사 중앙회), 李性在(만선일보), 김응두(계림분회), 상무이사 鈴川會南(문예가), 永井孝治(개척총국), 간사 金安泰昊(협화회 중앙본부), 申基碩(개척총국), 姜聲邵(만척), 최삼풍(馬政局)⁶⁸⁾

간담회 사무소는 개척총국 제2과에 두었으며 재만 한인 이주협회와 공동으로 개척민의 문화 창달을 위해 정기적 모임을 개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야담, 영화, 연극 등으로 개척민의 위안교화와 순회강연과 간행물

66) 『每日申報』 1942년 5월 10일, 「이제야 멋뻐한 황민」.

67) 『每日申報』 1942년 11월 17일, 「재만조선인 징병준비태세확립」.

68) 『每日申報』 1941년 10월 3일, 「개척전사에 문화」.

을 통한 개척민의 계몽 교화를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윤상필은 1943년 2월 개척민 문화간담회 자리에서 전 만주지역에서 개척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시설비 마련을 위하여 '백만원 재단'을 설립하고자 했다. 그는 신경 15,000원, 봉천 35,000원, 목단강 2만원, 하얼빈 3만원, 안동 1만원, 통화 5천원, 간도성 5만원 등 첫째 15만원의 모금액을 목표로 활동하였다.⁶⁹⁾

1942년 9월 윤상필은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 협화의 낙토로 만주국이 성장하였다고 했다. 개척총국 참사관이었던 그는 만주 제국의 창건은 세계를 새로운 질서로 인도하는 획기적인 일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만주국은 동아 제민족의 일대 성업을 달성할 수 있는 곳이며, 재만 한인의 생명선을 보호하기 위해 인구문제,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만주국에 있다고 했다. 만주국은 곧 제국주의 일본의 생명선이라는 것이다.⁷⁰⁾

1942년 10월 14일 윤상필은 부인시찰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만주 개척민들의 '결혼'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20여 명으로 이루어진 조선인부인지도원 만주개척지 시찰단 일행에게 이른바 '개척 신부' 계획을 설명하였다. 그는 "조선인개척민 제2차 5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희망에 가득찬 만주의 조선인 젊은 개척민이 아내와 따뜻한 저녁밥을 꿈꿀 수 있게 신부를 알선하기 위해서" 개척총국 제2과가 주최가 되어 '개척 신부'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다.⁷¹⁾ 부인시찰단의 金本英淑은 자신은 개척민의 용감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만주지역을 찾았다고 하면서 오늘날 흑룡강성 용강현 신흥촌에 정착한 내용을 언론사에 기고하였다.⁷²⁾

1940년대 들어서면서 윤상필은 '개척민'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문제에

69) 『每日申報』 1943년 2월 24일, 「개척민복리시설비로 백만원재단을 계획」.

70) 『每日申報』 1942년 9월 19일, 「만주건국 10주년 경축의 기쁨」.

71) 『每日申報』 1942년 10월 21일, 「부인시찰단과 만주개척당국과의 간담회」.

72) 『每日申報』 1942년 10월 26일, 「부인만주시찰단 현지통신」.

도 깊게 관여하였다. 그는 재만 한인동포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반만항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대한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림 간도성 등지의 산 속에는 아직도 공산비가 숨어 있어 적지 않은 두통꺼리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많은 조선사람이 끼여 있어 활동하고 있는 터라 이것은 이 나라에 가서 사는 150만명이 넘는 조선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큰 문제려니와 때때로 같은 민족끼리 참혹한 비극을 일으키어 생활 근거도 아직 잡히지 못한 조선개척민을 위해서 큰 화근이 되고 있는 터이다”⁷³⁾라고 했다. 이른바 왕도낙토 호위운동을 위해서는 반만항일세력의 일소가 해답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윤상필은 동남지구 특별공작후원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김일성 등 반만항일세력에게 권고문을 재만 한인 150만 명의 총의로 보낸다고 했다. 이 권고문(삐라)은 비행기로 만주 전역에 뿌려졌다. 다음은 삐라의 일부분이다.

荒涼한 山野를 定處없이 徘徊하며 風餐露宿하는 諸君! 密林의 原始境에서 現代文化의 光明을 보지 못하고 不幸한 盲信때문에 貴重한 生命을 草芥같이 賭하고 있는 加없는 諸君! 諸君의 咀呪된 運命을 깨끗이 清算하여야 될 最後의 날이 왔다! 生하느냐! 死하느냐? 150萬 白衣同胞의 總意를 合하여 構成된 本委員會는 今冬의 展開될 警軍에 最終的인 大殲滅戰의 峻嚴한 現實에 直面한 諸君들에게 마지막으로 反省歸順할 길을 열어 주기 爲하여 이에 蹶起한 것이다. 諸君의 無意義한 浪死를 阻止하고 諸君을 新生의 길로 救出하는 것은 我等 150萬에 賦與된 同胞愛의 至上命令으로 思惟하여 全滿 坊坊谷谷에 散在한 朝鮮同胞 150萬을 代表한 各地委員은 10月 30日 國都 新京에 會合하여 嚴肅하게 諸君의 歸順하기를 勸告하기로 宣言하고 茲에 그 總意의 執行을 本委員會에 命한 것이다. 民族協和의 實現과 道義世界創成의 大理想을 把持하여 燦然히 躍進하고 있

73) 『每日申報』 1940년 11월 3일, 「공산비의 귀순을 촉진」.

는 我滿洲國에 있어서 150萬의 同胞가 忠實한 構成分子로써 國民의 義務를 다하여 光輝있는 繁榮의 길을 前進하고 있는데 一部에 文明의 光明을 보지 못하고 架空的인 盲信때문에 國家施設의 惠澤과 法律保護에서 全然 離脫된 不幸한 諸君들이 尙存하는 것은 民族의인 一大 污點일 뿐만 아니라 피를 함께 한 諸君으로 하여금 이 世上 慘憺한 生活을 繼續케 한다는 것은 人道에 座視할 수 없는 重大問題로서 생각하여 이에 本委員會는 150萬이 總意를 代表하여 諸君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良民이 되도록 즉시 歸順하여 同胞愛 속에 도라오기를 嚴肅히 勸告하는 바이다. 諸君은 이 勸告文이 150萬의 心血을 기우린 至情과 諸君의 身上을 憐愍하는 따뜻한 150萬의 愛情의 發露임을 깨닫고 同胞愛를 離反함이 없이 이 機會에 幡然大悟하여 過去의 惡夢에서 깨여 新生의 大路로 나올 것을 期待하는 바이다. 諸君이 我等의 뒷°뜻한 溫情속에 돌아 오는 날은 本委員會는 諸君의 生命을 保障하는 데서 나아가 諸君을 安定한 生活로 引導하여 我等과 함께 男耕婦織하여 平和한 生活을 보내도록 할 生活安定策이 또한 諸君의 身上을 걱정하는 150萬의 慈愛의 結晶에 依하여 本委員會의 손으로 準備되어 있는 것이다.(중략) 嗚呼!! 密林에 彷徨하는 諸君!! 이 勸告文을 보고 즉시 最後의 斷案을 내려 更生의 길로 뛰어 나오라!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고 懺悔할 것도 懺悔하고 이제까지의 君等の 世界에 類例없는 不安定한 生活에서 즉각으로 脫離하여 同胞愛의 따뜻한 溫情속으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君等の 武勇과 意氣를 新東亞建設의 聖業으로 轉換奉仕하라! 때는 늦지 않다! 只今 곧 我 150萬 同胞의 最後의 呼訴에 應하라. 最善을 다하여 諸君을 平和로운 生活로 引導할 本委員會의 萬般準備가 諸君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⁷⁴⁾

한편 윤상필은 간도특설대를 위문하면서 파격적인 활동비용을 지급하

74) 『삼천리』 1941년 1월 1일, 「김일성 등 반국가자에게 권고문, 재만동포 150만의 총의로」.

기도 했다. 간도특설대의 활동은 만주국의 三光정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항일무장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간도특설대 활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간도특설대가 치중했던 것은 정보 분야의 확충이었다. 정보역량의 강화만이 항일무장세력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간도특설대의 정보역량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관동군 및 만주국군이라는 상급기관의 보조를 통해서 가능하였다. 간도특설대의 활동은 가혹한 탄압을 통한 치밀한 회유로 정리할 수 있다.⁷⁵⁾

1943년 2월 윤상필은 조선인보도부 조직에 관여하였다. 이에 앞서 그는 1942년 2월 협화회 중앙본부의 협찬을 받아 이주한인을 조직적으로 지도할 단체의 결성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는 이범익, 윤상필, 진학문, 김응두, 이성재, 이선근, 김태호 등이었으며, 회의 내용은 1937년 치외법권 철폐로 이주 한인들의 보호장치가 상당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한인 보호 및 지도기관의 설치가 절실하여 朝鮮人輔導委員會를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⁷⁶⁾ 그해 11월 5일 조선인보도부 계획안이 협화회에서 통과되었다.⁷⁷⁾ 1년 뒤 2월 설립된 조선인보도부 초대부장은 민생부 학무사장 참의부비서 국장을 지냈던 神尾戎春이며, 부부장으로 林漢龍과 이흥주가 선임되었다. 윤상필은 조선인보도부 분과위원으로 김응두, 감창영 등과 함께 선임되었다.⁷⁸⁾ 이 조직에서는 재만 한인 청년들의 징병제 준비에 협력한다는 취지와 황민으로서 재만 한인 지도를 계획하고 있었다. 만주국 고급관료로서 윤상필은 제국주의 일본의 충량한 신민이었다.⁷⁹⁾ 이와 같은 만주국 관료

75) 김주용, 『만주지역 친일단체』, 역사공간, 2014 참조.

76) 『每日申報』 1942년 2월 12일, 「조선인보도위원회 협회화기구에 특설」.

77) 『每日申報』 1942년 11월 17일, 「조선인보도부 협화회 내에 설치」.

78) 『每日申報』 1943년 2월 18일, 「조선인보도본부발족」.

79) 일제 패망 후 윤상필은 김인옥과 함께 소련군에 끌려가 시베리아 유형장에서 생활하였다. 그의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윤상필 자료

로서의 윤상필 활동은 제국주의 일본의 패망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되었다.

V. 맺음말

윤상필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문서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27기 동기생들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의 행적이 군인과 고급 관료였기 때문에 자료도 그만큼 많았던 것 같다. 동기생 가운데 성적이 가장 뛰어난 윤상필은 제국주의 일본 군인으로 조국의 정체성 문제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

윤상필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마지막 생도였다. 일제는 1909년 9월 대한제국 군부의 숨통을 끊고 한일 강제 병합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육군무관학교를 폐쇄하였다. 그리고 졸업하지 못한 무관학교 생도들을 다시 시험을 거쳐 1909년 9월 일본육사 편입을 위해 현해탄을 건넜다. 윤상필은 이때 동기생들 가운데 1등을 차지했다. 그는 유년학교와 일본 육사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였다. 육사 수석으로 졸업하여 기병 소위로 군 생활을 시작했던 그는 1918년 조선군사령부로 전속되었다. 용산 소재 20사단 보병 제40여단 예하 기병 제28연대에서 근무했던 윤상필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의 인생에서 1931년 9월 18일에 발생한 만주사변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9월 18일은 중국의 국치일로

를 확인하였고, 미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필자가 입수하지 못했다. 절차를 거쳐 수집한 후 그의 말년의 행적을 추후 보완하려고 한다.

지정되어 해마다 기념하고 있는 날이기도 하다. 이때부터 중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를 항일전쟁기로 부른다. 이 때 윤상필은 홍사익의 주선으로 관동군총사령부에 배속되었다. 그가 맡은 업무는 한인 관련 업무였다. 즉 그는 무엇보다도 만주사변으로 중국군 패잔병에게 피해를 입고 있었던 한인들의 실상을 파악하는 업무를 맡았고, 이후 개척총국의 책임자로 한인의 만주이주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한 인물로 각인되었다. 만주국의 개척민 관련 사업은 윤상필의 손끝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는 1935년 현연 군인의 신분을 벗어나 만주국 관료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그의 활동은 만주국의 선전활동과 그 궤를 같이하였다. 협화회 활동, 간도협조회 창안, 간도특설대 방문, 징병제 도입, 반만항일세력에 대한 '귀순작업' 등 다양한 형태의 황민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대한제국 마지막 생도이자 일본 육사 27기였던 그는 동기생 가운데 가장 비범하였으며, 해방 이후 소련군에 억류되지 않았다면 한국군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의 일본 육사 동기와 선배들이 한국군 창설과 함께 당시 '친일'의 굴레를 벗어나 탄탄대로의 길을 갔던 것처럼 그도 그들과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윤상필은 소련군에 끌려가 그곳에서 삶은 마감한 '비극의 군인'으로 남았다.

제국주의 시대 한 국가의 구성원이 힘의 논리에 의해 기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데 앞장섰던 모습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순한 '친일=매국'의 논리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균형을 깨트리고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파괴하는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고 공동체적 경험을 복원하여 상호협력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020.12.10. 투고 / 2020.12.16. 심사완료 / 2020.12.24. 게재확정)

[Abstract]

Life and Activities of Yoon Sang-pil, Migrant Architect of the
Korean People's Pioneering during the Manzhoukuo Period :
cooperation and submission with imperial Japan

Kim, Joo yong

Yoon Sang-pil was the last cadet of the Korean Empire Military Academy. With his outstanding ability and physical strength, he moved to Japan in 1909 and graduated as the 27th class of the Japanese Military Academy in 1915. It was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on September 18, 1931 that he distinguished himself as a soldier and administrative official. It was to investigate and protect Koreans who were attacked by Chinese soldiers. In recognition of his contribution, he took off his military uniform in 1935 and led a stable life as a high-ranking official of Manchuria. He was able to walk on the path of active pro-Japanese activities. And the peasants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forced to move to Manchuria at his fingertips. After liberation, he was arrested by Soviet troops and went to a Siberian camp where he ended his life. Yoon Sang-pil, a brilliant and extraordinary talent, is not easy to escape from the disgrace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who pursued individual spirituality.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he is shunned is that he has undermined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 Keyword

Yoon Sang-pil, Korean Imperial Army Military Academy, Japanese Military Academy, Manchurian Incident, Manchuria State, Migrant, Pro-Japanese

[참고문헌]

-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신한민보』, 『密大日記』, 『每日申報』, 『동아일보』, 『在滿朝鮮人通信』.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 - 일제의 해외 조선인 통제와 친일협력(1931~1945)』, 2009.
- 黑龍江省檔案館 編, 『東北日本移民檔案』-黑龍江省 1, 광서사범대학교, 2005.
- 김기훈, 「만주국시기 조선인 이민담론의 시론적 고찰-조선일보 사설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1, 2011.
- 김태국,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영, 『근대만주벼농사 발달과 이주 조선인』, 국학자료원, 2004.
- 김주용, 『만주지역 친일단체』, 역사공간, 2014.
- 이기동, 『비극의 군인들』, 일조각, 2020.
- 이원규, 『애국인가 친일인가』, 범우사, 2019.
- 정운현, 『친일파는 살아있다』, 책으로 보는 세상, 2011.
- 지복영, 『역사의 수레를 끌며』, 문학과지성사, 2004.
- 塚瀬進, 『滿洲國-民族協和實狀』, 吉川弘文館, 2000.
- 임성모, 「만주국협화회의 대민지배정책과 그 실태-동변도치본공작과 관련하여-」, 『동양사학연구』 42, 1993.

